

설렘과 목표의식을 잊지 마시고...



이근옥

- 정화여자고등학교 졸업
- 서강대학교 사학과, 사회학과 졸업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
- 현)법무법인 (유)원-사단법인 선 상임변호사

I. 서설

안녕하세요, 저는 제9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이근옥 변호사(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제9기)입니다. 저보다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한 동료 법조인들이 많이 계실 줄 알기에, 합격수기를 남기는 것이 부끄럽기도 합니다. 다만, 저는 학부 때 사학 및 사회학을 전공하며 법학과목을 5과목 정도 수강한 것이 전부이지만 법학전문대학원 3년간 나름대로 꾸준히 성과를 내며 학업을 성취하였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 경험을 발판 삼아 저와 같은 비법학도 후배님들도 법학에 흥미를 갖고 공부할 수 있기를 바라며, 부족하나마 합격수기를 몇 자 남깁니다.

II. 합격비결

1. 학교 수업 예습 및 복습(1학년~3학년)

비법학사로서 법학을 공부했던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었음에도 1학년 1학기 때부터 사례형 답안지를 써내려 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학교 수업시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수업 전 예습을 통해 수업시간 교수님의 설명을 최대한 이해하려 했고, 수업 직후 강의자료를 보면서 수업을 복기하고 변호

사시험 사례형 문제를 풀면서 수업 내용을 제 것으로 소화하려고 하였습니다. 수강하던 모든 과목을 수업 전후 예·복습하기에는 시간이 충분치 않았으므로 저는 1학년 1학기, 법학을 처음 접하며 비법학사로서 특히 걱정되었던 민법과 형법만큼은 예습과 복습을 했습니다. 학기가 흐를수록 공부량이 많고 그 내용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매시간 예·복습을 하는 것이 엄두가 나지 않았지만, 그럴수록 수업 당일에 해당 내용을 처음으로 접하게 될 경우 수업 시간을 허투루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최소한 수업 직전 강의자료를 훑어본 뒤 학교 수업에 임하고, 내신범위의 변호사시험 선택형, 사례형 문제를 품으로써 수업 내용 복습과 변호사시험 대비를 동시에 하였습니다.

위 같은 방법으로 공부할 경우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범위 회독수를 늘릴 수 있으므로 시험 기간에 비로소 강의자료를 펼치는 것보다 내신 대비에 유리합니다. 또한 수업시간에 집중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출제될 법리를 예상하고, 이를 이해하며 효과적으로 내신을 대비할 수 있게 됩니다.

학교 시험 대비가 변호사시험 준비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수많은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는 최선을 다해 학교 시험에 임한다면 ① 일주일에 15~18시간(=15~18학점)에 육박하는 수업 시간에도 변시 공부를 할 수 있어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고, ② 우수한 로스쿨 학점은 3년간의 장기레이스에 자신감과 추진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학교 시험에 충실한 태도는 변호사 시험 준비에 분명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입니다.

덧붙여, 주로 법전원 1학년 여름과 겨울에

다음 학기 과목을 선행학습하고 2학년 여름때부터는 재판실무 등에 집중하게 되는데, 선행 학습을 하더라도 막상 학기가 시작되면 그 내용이 가물가물하여 그 효과를 크게 보지는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예습의 형태는 학교 수업 시간 ‘직전’ 강의안을 참고하여 수업 범위를 훑어보고, 방학 때에는 지난 학기 배운 내용을 복습하는 것이 비법학사에게는 보다 효과적인 수험생활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재판실무 과목 활용하기(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저는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각 형사재판실무와 민사재판실무 과목을 열심히 수강하였고, 재판연구원 필기전형에 합격하여 면접에 응시한 바 있습니다. 물론 형재실, 민재실을 수강하지 않거나 혹은 재판연구원 준비를 하지 않고도 변시 기록형에서 고득점을 거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① 재판실무 과목은 판례의 사실관계가 재판실무 시험 문제로 각색되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수업시간에 언급하시는 판례번호의 판결 요지와 대략적인 사실관계를 공부하고 시험에 대비하는 과정에서 법리를 폭넓게 이해·암기할 수 있게 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② 재판실무 과목은 변호사시험에서 많은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민사기록형, 형사기록형과 직결됩니다. 시험 문제의 형태는 말할 것도 없이 유사하며, 또한 형재실과 민재실 모두 답안지 작성 시간이 부족한 시험이므로 시간관리에 특히 유의하며 시험 대비를 하게 되는데 제9회 변시 기록형 문제 역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였습

니다. 저는 다행히 형재실, 민재실 준비와 재판연구원 필기시험을 대비하며 시간관리 연습을 한 것을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시간 내에 기록형 답안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③ 뿐만 아니라, 올해 변호사시험에서는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을 막론하고 재판실무에서 강조했던 관례가 다수 출제되었음을 제감했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로스쿨 1학년, 2학년 수험생께서는 재판연구원 전형에 응시하지는 않더라도 형재실과 민재실은 충실히 수강할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3. 자신 없는 과목일수록 핸드북에만 의존하지 말고 기본서 병행하기

저는 재판연구원 준비로 인하여 3학년 여름 방학 때까지도 공법 과목에 시간을 거의 쏟지 못하였고, 결국 3학년 2학기때 부랴부랴 학교의 공법 수업을 다수 수강하며 변시 대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행정법 교수님께서는 ‘핸드북’만 보지 말고, 어떤 책이든(엑기스를 포함하여) 교과서를 참조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공법 공부를 소홀히 한 탓에 핸드북으로 정리된 내용이 이해가 잘 되지 않았던 저는 결국 교수님의 말씀대로 교과서를 보기로 했고, 『로스쿨 핵심강의 행정법』, (박균성·김유향 공저)를 2학기 내내 반복하여 읽었습니다.

1, 2학년때부터 교과서와 관례집, 변시·변모 기출문제를 통해 공법의 기초를 다진 수험생이라면 3학년 때에는 핸드북을 수회 회독하며 변시 대비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같이 공법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이론과 관례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기본서를 활용하며 기출문제를 학습하

는 편이 ① 법리와 주요 관례를 동시에 학습할 수 있어 오히려 공부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② 핸드북의 요약된 저술방식보다는 기본서의 가독성이 좋으므로 단기간 내 개념을 정리하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어떠한 책을 보더라도 개념을 이해하고 암기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얇은 핸드북을 수회 회독하며 핵심 개념을 놓치지 않는 전략으로 변호사시험에서 고득점을 기록한 동기들도 보았습니다. 저보다도 고득점을 받은 합격자들도 저마다 보는 책들이 달랐기 때문에 추천도서를 일률적으로 말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여러 책을 동시에 보는 것보다 하나의 책을 반복해서 볼 것을 추천합니다. 어떤 과목이든 짧은 주기로 여러 번 회독하는 것이 오랜 시간 동안 한번 꼼꼼하게 보는 것보다 암기에 유리하며, 하나의 책을 반복할 경우 회독 속도가 더욱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4. 어떠한 유형도 포기하지 말 것(변호사 시험 당일까지)

저는 1학년 때부터 변시·변모 사례형 기출문제를 통해 사례형 중심의 중간·기말고사를 대비하였고, 변시·변모 민형사 기록형을 연습하면서 재판연구원 전형을 준비하며 결과적으로 변호사시험을 대비하는 3년 내내 사례/기록형 중심의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 때문에 6, 8, 10월 모의고사 때에는 선택형 정답 갯수가 100개(총 150 문항)을 한참 밑도는 낮은 성적이 나왔지만, 그나마 사례/기록형에서 고득점을 거두어 일정 수준의 총점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동기들은 3학년 1년 간 변시·변모 선택형을 최소한 1~2회독 한 반면, 저는 1,2학년 때

내신대비를 하며 선택형을 풀었던 것 외에는 객관식 공부를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재판연구원 면접 전형이 끝난 뒤 11월 중순부터 12월 초까지 약 3주간 변호사시험 5개년(4~8회 번시), 모의시험 3개년(2017~2019년 6,8,10모) 선택형 문제를 그야말로 ‘배수진을 치고’ 풀었습니다. (위 문제들만 푼 것은 순전히 선택형 문제를 풀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시간이 있었다면 더 많은 문제들을 풀어보았겠지요. 다만 초기 번시·변모 문제와 현재 출제경향이 약간 다르고, 최신 판례를 보려면 최근 문제를 보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이 들어 최신 문제들로 선택형 기출 문제를 연습하였습니다.)

변호사시험에는 예전 기출문제가 그대로 출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각각의 지문에 담긴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지 않으면 문제를 푸는 의미가 반감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혹여나 정답을 맞추었다 하더라도 헛갈리는 개별 지문은 해당 범위의 교과서 저술을 참고하며 그 내용을 학습하였습니다. 번시가 한달도 남지 않아 더 이상 개별 지문마다 교과서를 찾아볼 엄두가 나지 않을 때에도 최소한 핸드북

이나 답안지 해설을 읽으며 선택지 변형에 대비하였습니다.

재판연구원 면접 이후 막판 50일간은 비교적 자신 있는 사례형/기록형 대신, 남들보다 공부량이 턱없이 부족한 선택형 대비에 집중했습니다. 마지막 모의고사인 10모 때까지도 확신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다행히도 50일의 막판 레이스 동안 매 회 문제를 풀 때마다 정답 갯수가 올랐고, 변호사시험에서는 공법 31개(총 40문항), 형법 35개(총 40문항), 민법 59개(총 70문항) 총 125개(총 150문항)를 기록, 사례/기록형보다도 고득점을 내며 제 변호사시험 점수의 효자과목이 되었습니다.

객관식에서 고득점을 받게 되면 변호사시험 종료 후 합격자 발표일까지 상대적으로 크게 불안해하지 않으며 취업에 집중할 수 있고, 표준점수로써 ‘보정’되는 사례형/기록형과 달리 득점이 점수로 그대로 연결되기 때문에 변호사시험 총점을 올리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사례형, 기록형에 자신이 있는 수험생이라면 선택형 점수가 높지 않아도 변호사시험에 큰 문제없이 합격할 수 있을 것이며, 사례

시험년도	2020		수험번호	11606			이름	이근욱		생년월일	930109			
선택형			논술형									전문직업분야		
공법	형사법	민사법	공법			형사법			민사법			노동법		
			1문	2문	기록형	1문	2문	기록형	1문	2문	3문	기록형	1문	2문
77.50	87.50	147.50	49.25	50.73	59.27	61.01	53.77	52.77	82.40	53.12	59.53	105.49	47.36	47.51
			159.25			167.55			300.54			94.87		
총점			1034.71											

형과 기록형이 선택형에 비해 ‘벼락치기’가 어려우므로 사례, 기록형 중심의 학습이 변호사시험 합격에 주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변호사시험 직전에는 상대적으로 점수를 단기간에 끌어올릴 수 있는 선택형에 대한 ‘감’을 익히기 위해서라도 선택형 문제를 집중해서 풀어볼 것을 권합니다.

III. 시행착오

1. 멘탈관리

누구나 3학년 때에는 실패를 겪을까 불안해 하지만, 저는 재판연구원 준비와 변호사시험 준비를 병행하며 이루 말할 수 없는 불안과 스트레스를 겪었고 이는 체력적인 부담으로도 직결되었습니다. 1, 2학년때 함께 공부했던 동기들과도 조금 다른 상황에 직면해 있었기 때문에 고민을 터놓을 친구도 많지 않아 더욱 외로웠고, 평소 동기들과 함께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는 저는 위와 같은 상황이 멘탈관리에 더욱 치명적이었습니다.

12월 말까지 일주일에 이틀 정도 요가를 가면서 몸과 마음을 다잡은 것이 변호사시험을 무사히 완주한 데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께서도 심신에 도움이 되는 자신만의 운동을 찾아, 변호사시험 직전까지 운동을 놓지 마시고, 일상에서의 조그마한 숨구멍을 틔워 놓으시길 바랍니다.

2. 최신판례를 반복하여 꼼꼼히 보지 않은 것

저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1, 2학년 때에는 교과서와 기출문제 중심으로 내신대비를 하고, 3학년 때에는 재판실무 기록을 반복하여

풀면서 재판연구원 준비를 하느라 3학년 가을까지 시중에 나온 최신판례집을 볼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연구원 본시험(필기시험)에서도 변호사시험 최신판례집에도 실려 있었던 판례들이 등장하였고, 최신판례는 ‘변호사시험 선택형 대비용으로 보는 것’ 정도로 인식하며 최판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였던 저는 본시험을 마친 후 최판을 열심히 보지 않은 것을 크게 후회하였습니다. 변호사시험을 마친 후, 재판연구원에 합격한 지인들로부터 “여름방학 때 본시험을 대비하며 최신판례 학습도 병행하였던 것이 본시험과 변호사시험에 두루 도움이 되었다”는 말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최신판례집 만큼은 선배들 것을 물려받기 보다, 3학년이 된 그해 최판을 구한 후 변호사시험 직전까지 틈틈히 반복하여 공부하실 것을 권합니다.

IV. 마치며

저는 비법학사이기는 하지만, 조영래 변호사를 알게 된 고등학교 2학년때부터 변호사시험을 준비하였던 작년까지 근 10년 동안 “조영래 변호사님과 같은 유능한 변호사가 되겠다.”고 다짐하며 법조인을 꿈꾸었습니다. 법조인이라는 꿈을 꾸게 된 계기가 지금의 저를 만들었고, 그러한 제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수험기간 동안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법학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고 하루하루 그 날의 공부를 했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모든 수험생 분들 역시 법조인이 되겠다고 처음 다짐했을 때의 설렘과 목표의식을 잊지 마시고, 법조인이 되어 저마다의 꿈을 마음껏 펼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